

2005. 4. .

일본연수결과보고서

- 기 간 : 2005. 2. 26 ~ 3. 4(6박 7일간)
- 연수국 : 일본(오사카, 교토, 도요하시, 야마나시, 동경)
- 연수자 : 9명(의원 7명, 공무원 2명)
- 목 적 : 쓰레기처리시설, 농업관련시설, 지방자치제도 견학

담 당	계 장	과 장	부의장	의 장	결 재

거 창 군 의 회

- 목 차 -

I. 연수 개요	
1. 목적·기간·연수국·연수자·일정	2
II. 연수 내용	
1. 쿠루쿠루 리사이클센터 견학	4
2. 오사카성 견학	7
3. 귀(코)무덤 참배	8
4. 야마나시 과수시험장 방문	10
5. 야마나시 시청 및 의회 방문	13
6. 동경도청전망대 견학	17
7. 동경 쌀 갤러리 방문	18
8. 황거(황궁) 견학	19
III. 연수결과 제안(벤치마킹)	
1. 노인전용 상설 아나바다시장 개설운영	20
2. 귀(코)무덤 거창 안치	20
3. 행정조직은 지역 특성에 맞게	21
4. 쌀 소비촉진 프로그램 개발 운영	21
IV. 맺 음 말	
1. 선진국 국민의 정서와 자질 소유	22
2. 지진의 불안과 물가고의 고통	22
3. 좋은 점은 우리 생활에 접목	23

I . 연 수 개 요

1. 연수 목적

- 우리 군의 쓰레기 처리장의 매립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일본의 쓰레기 처리실태와 방법에 대해 현장답사를 통하여 직접 체득하고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문제점 여부와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 농업 선진국인 일본의 농산물(과수)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 방법과 농산물 유통센터의 기능과 실태 및 농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정책에 대해 비교 견학을 실시, 우리 농업의 지원방안을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 일본의 지방자치 제도와 운영 실태 및 관광지 관리와 운영 등을 견학하여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와 비교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함.

2. 연수기간 : 2005. 2. 26 ~ 3. 4(6박 7일간)

3. 연 수 국 : 일본(오사카, 교토, 도요하시, 야마나시, 동경)

4. 연 수 자 : 9명(의원 7명, 직원 2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거 창 군 의 회	의 장	이 문 행	○ 직 원 - 전문위원 : 김순현 - 직 원 : 박승진
	부 의 장	신 현 기	
	의회운영위원장	정 화 석	
	총 무 위 원 장	이 현 영	
	산업건설위원장	이 수 정	
	의 원	박 점 용	
	의 원	김 정 회	

5. 연수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 문 지(시설·기관)	업 무 수행내용	비 고
2.26(토) (1일차)	거 창 김 해	김해공항 오 사 카	- 쿠루쿠루 리사이클센터 방문 - 오사카성 견학	- 쓰레기 수집, 재활용품 등 - 관광자원 견학	시설관계자
2.27(일) (2일차)	오사카	교 토	- 청수사(절), 평안신궁 (신사)방문 - 귀(코) 무덤 참배	- 현장견학 - 참 배	
2. 8(월) (3일차)	교 토	야마나시	- 야마나시 과수시험장 - 야마나시 시청 - 야마나시 시의회	- 과수시험장 운영 - 자치단체(시) 및 의회운영, 제도	시설관계자 시장 의장
3. 1(화) (4일차)	야마나시	야마나시 (체류)	- 후지산 일함목 견학 - 농산물 직판장 견학	- 후지산(입구) 관광 시설견학 - 농산물판매전시장 시설 견학	현장 견학
3. 2(목) (5일차)	야마나시	동 경	- 하코네 유황계곡 견학 - 아시호수 유람선 시승 - 하코네 신사 삼나무숲 견학 - 동경도청 전망대 견학	- 유황가스 분출 현장답사 - 호수 관리 실태 - 신사 관리 실태	현장 견학
3. 3(금) (6일차)	동 경	동 경 (체류)	- 동경 시내 견학 - 일본 황궁 견학	- 쌀 갤러리 견학 - 공원 견학	현장 견학
3. 4(토) (7일차)	동 경	김해공항	- 나리타 공항 출발 ~ 김해공항 도착	- 이 동	20:50 (거창도착)

II. 연수 내용

1. 쿠루쿠루 리사이클센터 견학

▣ 시설 개요

- 설립지 : 대판부 취전시 천리전공원 4번 3호
- 설립자 : 취전시 주관으로 합자설립
- 설립연도 : 1992년도
- 부지면적 : 29,898m²(9,044평)
- 처리용량 : 85Ton/5H(쓰레기 집하처리장)
- 처리방식 : 5종류로 분류 파괴선별하여 자원 재이용
- 운영방법 : 제3섹터(민·관·연구단체)

▣ 리사이클센터의 주요업무

- 370만 명의 인구가 1일 13만 4,000여 톤의 쓰레기를 생산
- 13년 전인 1992년도에 쓰레기양 절감을 위해 시와 기업이 제3섹터로 설립
- 각종 쓰레기를 재활용(리사이클)할 수 있도록 지원
- 1일 367톤의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등 5종으로 분리
- 자전거, 우유팩, 헌옷가지, 가구 등을 수거하여 보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재활용하는 8개 공방운영
 - 자전거 : 1대 3,000엔(신품 30,000엔) ⇒ 매월 10대 정도 판매



《의류공방 운영광경》

- ◀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의류공방에서 헌 옷가지, 헌 우산의 천 등을 재활용하여 모자, 손가방 등을 만드는 취미생활과 여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

- 주민의 참여 유도를 위해 매년 이벤트 행사 실시
 - 매 행사 시 70여 점포 2,000여 명 참여
- 시민 대상 쓰레기 절감과 재활용 강좌, 강연회를 연중 개최
- 생산된 제품을 시민에게 빌려 주기도 함
- 누구나 연구원으로 참여 가능(보수는 없음)



《자전거공방 운영》

- ◀ 자전거공방에서는 버려진 자전거의 부속을 활용하여 재생자전거를 생산, 3,000엔 정도에 시판되고 있다(일본의 자전거 정품 가격은 30,000엔 정도이다).



- ▲ 유리공방에서는 색상별로 분리 수거한 빈병을 활용, 장식품으로 재생산 판매하고 있다.

- ◀ 가구공방에서는 폐가구를 수거하여 수선 또는 재생하여 전시 판매를 하고 있다.

■ 견학결과 소견

- 리사이클센터는 오사카시에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공공시설로서, 시민들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 쓰레기를 수거하면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류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가구, 헌옷, 자전거 등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재활용품을 생산,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싼값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시민들의 참여 의식도 높아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관심이 가는 부분이었음.
- 특히 연구시설을 갖추고 시민 누구나 쓰레기와 관련하여 직접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수리방, 가구공방, 유리공방, 의류공방, 도예교실, 폐지재활용교실, 음식찌꺼기 재활용교실, 수선교실 등 8개 분야의 공방을 프로그램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정년퇴직 등 고령자들이 취미생활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 우리 거창에도 이러한 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한다면, 노인들의 여가 선용과 재활용품 생산 판매 시 노인회의 기금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음.

2. 오사카 성 견학

- 오사카 성은 풍신수길의 성이라고도 불리며 임진왜란의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통일의 근거지로 삼고자 1583년부터 약 15년의 세월 동안 축성한 성으로 원래 이곳에는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 불타 없어진 이시야마 혼간지가 있었다.
- 나고야성, 구마모토성과 더불어 일본 3대 명성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오사카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도 유명한데 성 주위에 우치보리(안쪽을 팸)와 소토보리(바깥쪽을 팸)라는 해자를 둘러 적군이 쉽게 건너오지 못하게 하여 “오사카의 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가문과의 전쟁) 때 도쿠가와 측은 이 성을 쉽게 함락하기 어려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 오사카 성의 개관은 09:00~16:30(하절기 19:30)이며 천수각의 입장료는 600엔(한화 6,000원)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의 파란만장했던 일대기와 당시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고, 천수각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오사카시의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철 1일 승차권 소유자는 100엔을 할인하고 있었다.



【오사카성】

3. 교토의 귀(코) 무덤 참배

- 교토의 귀(코)무덤은 우리역사의 부끄러운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던 곳으로서 우리 선조들이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으며, 그 성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살해한 시체의 귀(코)를 염장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확인 받은 후 묻은 곳으로서 약 2만여 구의 귀(코)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무덤 관리자(미미르까 씨)에게 핑과리 증정】

- 귀무덤의 정식 명칭은 코를 묻었기 때문에 코 무덤으로 불려야 하나 일본인들이 너무 잔인하다고 귀무덤으로 부르고 있으며, 무덤이 시내 어귀에 민가와 인접하여 있는데 가로 세로 10여 미터 크기로 견치석을 쌓고 중앙에 석탑이 세워져 있었다.
- 처음 귀무덤을 본 순간 우리 선조들이 왜놈들에게 살해되고 코가 잘려 이곳에 묻혀졌다고 생각하니 섬뜩했으며 언젠가는 일본에 보복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애국심과 국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 느꼈다.

- 현재 귀(코)무덤의 관리자는 일본인으로서 91세 고령의 미미르까 씨이며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무덤의 옆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관리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보수나 지원이 전혀 없다고 하며, 미미르까 씨의 건강이 나빠져서 몇 년 내 관리자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동안 귀무덤 관리를 해 온 미미르까 씨의 정성과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선진지 방문기관에 선물할 팽과리를 선물했다.
- 거창군의회 의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향후 관리자가 없어지면 “억울하게 죽은 조상의 넋을 누가 달래어 줘야 하나?” 라고 한탄하며 귀무덤을 우리 거창군이 발 빠르게 송환 안치하여 매년 제향 행사를 갖는 등 관광자원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귀무덤 전경】

4. 야마나시 과수시험장 방문

▣ 시험장 개요

- 위 치 : 山梨縣 山梨市 江曹原 1204
- 규 모 : 17ha
- 행정조직 : 1과(果), 3부(部), 6과(科)
 - 과(果) : 총무과
 - 부(部) 및 과(科)
 - . 육종부 : 신품종 육종과, 낙엽과수 육종과
 - . 재배부 : 신품종 재배과, 낙엽과수 재배과
 - . 환경부 : 병해충과, 생리가공과
- 운 영 : 야마나시시(山梨市)



【과수시험장 본관】

○ 주요시설 : 본관(연구관) 외 7개 시설

시 설 명	시 설 용 도	비고
본관(연구관)	- 사무실, 회의실, 연구실 등으로 활용	
양 조 동	- 포도주(적포도, 백포도) 개발 실험실	
배 양 동	- 신품종(포도, 사과, 복숭아, 양앵두) 배양	
저 온 실험실	- 과일 보관 시 신선도 유지 실험	
가온·무가온실	- 신품종의 생육상황 데이터 연구	
기 상 관 측 장	- 기상을 관측하는 곳	
과수재배시험장	- 성페르몬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시험 - 과수생리, 재배수형, 전지·전정 기술시 험	

■ 시험장의 주요 업무

- 과수시험장에서는 야마나시 지역에 적합한 포도, 사과, 복숭아, 양앵두 등의 과수품종에 대한 신품종개발,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과수재배기술(식재, 전지·전정, 접과 등), 과일 수확 시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 성페르몬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등을 연구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포도주의 명품화(백포도주, 적포도주)를 위해 포도주에 적합한 품종을 연구하고 있었다.



◀ 야마나시과수시험장 본관 회의실에서 과수 시험장의 주요업무 및 주요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현재 연구 관심분야
- 씨 없는 포도 및 유럽을 겨냥한 작은 알포도를 개발중에 있었다.

■ 시험장 공무원의 정년 및 복무형태

- 야마나시 과수시험장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며,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한 자리에서 평생을 근무하게 하는 등 과수시험장의 운영과 품종개발을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 시험장의 주요 성과

- 현재는 씨 없는 포도(새끼 거봉) 개발과 유럽을 겨냥한 작은 알포도를 개발중에 있었으며, 포도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에는 삼목으로 묘목을 생산하던 것을 뿌리로 묘목을 생산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었으며,
- 복숭아 재배기술을 살펴보면 식재간격은 6m, 수고 4m로 쇠파이프(50mm)를 설치하여 부채꼴(Y자형) 수형으로 유도하여 관리자가 걸어가면서 수확하거나 높은 곳은 차를 타고 전진하면서 수확할 수 있도록 조성 생산자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등 과일의 색깔, 크기, 당도 등이 최고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 포도는 우리나라의 밀식재배와는 달리 15평~20평 정도에 한 그루를 크게 키워 중앙에 지주를 높게 설치하고 철사로 받전자(田) 형으로 엮어 포도나무 가지를 유도하는 재배법이 보급되어 있었으며, 여름철에는 포도나무 밑이 시원한 그늘이 되어 관광객이 더위를 피하기도 하며 주차장으로 활용된다고 한다.



《 복숭아재배 기술 견학》

- 식재간격 : 6.0m
- 수 고 : 4.0m
- 수 형 : 부채꼴(Y자형)
- 효 과
 - 생산자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등 과일의 색깔, 크기, 당도 등 최고의 상품 생산

5. 야마나시 시청 및 의회방문

1) 야마나시시의 여건과 실태

- 야마나시현은 해발 400여 미터의 고산 분지 지대로 인구 8만 9,000여 명의 농촌형 소도시이다.

기후가 과수재배에 알맞고 전통적으로 과수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포도, 복숭아, 자두, 양앵두는 일본 내에서 최고의 품질과 생산량을 자랑하고 동경과 130여 킬로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여 일본의 여건으로 볼 때 판매 등 소비층을 겨냥하기에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내에 온천이 개발되어 있어 온천을 겸한 관광농원이 활성화되어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2) 야마나시 시청 방문

◎ 야마나시시 현황

- 자치단체 종류 : 도(道), 시(市), 현(縣)
 - ※ 행정구역 : 도(道), 시(市), 현(縣), 정(町), 촌(村)
- 인 구 : 8만 9,000명
- 면 적 : 4,465km²
- 예 산 : 217억 엔(재정자립도 70~80%)
- 시장의 임기 : 4년(연임 제한 없음)



【야마나시시장의 시 현황 소개】



【야마나시시청 직원 근무광경】

◎ 야마나시시의 농업정책

- 일본도 우리나라의 농촌현실과 같이 젊은이들이 농사짓기를 꺼려하여 현재 농민들은 대부분 고령화 추세에 있으며, 농업 후계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2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람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무이자 또는 정부에서 이자를 부담해 주며, 농기계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었다.



【시청방문 기념품(팽과리) 증정】



【야마나시시청 전경】

3) 야마나시 시의회 방문

- ◎ 야마나시 시의회 현황 및 제도
 - 의원수 : 20명(남성 17명, 여성 3명)
 - 임 기 : 4년
 - 보 수 : 활동비, 수당 등
 - 회의개최방법 : 상임위원회별 회의
 - 의장의 임기 : 1년
 - 상임위원회 수 : 3개



《야마나시 시의회 본회의장을 견학 기념촬영》

- 중앙 좌측 야마나시 시의회 의장, 우측 부의장(여성)
- 좌측 첫 번째 야마나시시 총무과장

■ 연수결과 소견

- 야마나시현의 시청 건물을 보면 경제대국의 일본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낡은 건물로 되어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 듯 하였고, 일본인들의 근면·검소한 정신과 소박한 국민성을 엿볼 수 있었다.

건물은 총 4층으로 1층에서 3층까지는 시장실과 시청직원의 사무실로 활용되고 4층은 의회와 관련된 의장실과 상임위원회, 본회의장이 있었는데 내부에 갖추어진 회의장의 기자재는 소박하여 권위주의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

- 시청 사무실 통로는 건물 중심부를 기준으로 나선형의 계단을 이용하며, 사무실은 모두 오픈되어 관리자가 직원의 근무태도를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수십 년 전 읍·면사무소 분위기와 같은 정취가 느껴졌으며, 직원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고성이나 추태 등은 전혀 보이지 않는 등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돋보였다.

- 야마나시 시의회는 50년의 역사로 의원 정수는 법률적으로는 26명이나 현재 20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원구성을 하고 있었으며, 10년 전부터 여성의원이 선출되었는데 현재 여성의원은 3명이며, 한 여성의원이 부의장을 맡고 있어 거창군의회에서도 여성의원이 머지않아 선출되어 거창군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예견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6. 동경도청 전망대 견학

- 동경도청의 전망대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서, 건물 높이가 243m, 지상 48층, 지하 3층이며, 일본 수도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의 뛰어난 건축기술과 경제강국의 면모를 볼 수 있었으며, 일본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동경은 일본 수도로 인구는 약 1,200만 명이며 면적은 서울의 3배인 2,183km²로서 인구밀도는 5,482명/km²이다.
전망대에서는 동경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특히 일본의 영산인 후지산도 볼 수 있고, 포화상태에 놓인 동경도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신도시인 신주쿠와 이케부쿠로에 이어 오다이바를 신도시로 집중 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동경타워는 9개 채널의 수도권 텔레비전 전파와 5개의 FM채널의 전파를 담당하고 있고, JR(동일본철도)이나 관청용 통신관련 송·수신 전파의 중계기지 역할과 교통정보를 송신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일본 고속통신망도 이곳 동경타워 내에 위치해 있으며, 풍향·풍속계를 비롯한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 등을 고도별로 감시하는 측정기, 기상관측, 대기오염 측정에 사용되는 중요한 데이터도 이곳에 집중되어 정보화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통신, 방송분야 등 종합전파탑으로서 동경도청 전망대와 함께 동경타워는 질적이나 양적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동경도청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가지】

7. 동경 쌀 갤러리 방문

- 동경의 쌀 갤러리는 동경의 가장 값비싼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설 배경은 쌀 소비량이 40년 전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고, 식습관 변화로 서구화된 질병이 발생되고 있어 일본의 20~30대 젊은이들에게 쌀을 이용한 식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 쌀 갤러리는 국회를 비롯한 주요 도시 4개소에 개설했는데 1㎡당 무려 1억 엔의 값비싼 장소를 선정하여 쌀 소비대책에 안간힘을 쏟고 있었다. 운영경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었으며, 운영은 JA(일본농협)와 시민단체에서 쌀 소비와 관련된 음식조리 방법 100가지를 팸플릿에 담아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었으며, 현지 조리실에서는 조리법을 가르치는 등 20~30대 층을 겨냥한 다양한 식품개발과 저렴한 가격에 시판하고 있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었다.
- 우리나라도 쌀소비의 식사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수국가인 일본과 같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쌀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식품과 음식섭취를 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벤트 행사가 요구된다 하겠다.



【 JA(일본농협) 여직원으로부터 쌀 갤러리 설립 배경과 운영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8. 황거(황궁) 견학

- 황거는 일본 동경에 있는 목조 건축으로 지어졌으나 2차 대전 중 연합군의 폭격으로 파괴되어 소실되고 현재 보여지는 것은 1968년에 재건된 것이다.
- 막부정치로 실권을 잃은 일본의 천황은 교토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 교토보다 동경의 위치가 상승되면서 천황의 이동이 필요했다. 때문에 1888년 현재의 자리에 천황이 머물 황거를 짓고 이동하였다.
- 현재, 황거에는 천황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으며, 일반인은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 다만 매년 천황의 생일과 1월 2일에 천황이 황거에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때는 일반인의 입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평상시에는 외부의 해자와 황거로 들어가는 입구만을 볼 수 있는 정도였다.
- 황거를 찾은 관광객들이 또 들를 수 있는 곳은 동쪽에 있는 공원(동원)으로 에도시대의 유물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었다.
- 황거 앞 공원부지내의 조경수인 해송은 전지·전정 등 지속적인 관리로 수형이 보기 좋게 잘 잡혀 수목원의 분재와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황거 앞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는 50~100년 정도 된 소나무(해송)로 조성되어 있었는데 분재처럼 단정하면서도 오래된 고목을 연상케 하였다.
- 우리 군도 시가지 조성 시 소나무 등을 이용한 소공원조성과 가로수조성 사업에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가지 도로변 소나무 가로수】

Ⅲ. 연수 결과 제안(벤치마킹)

1. 노인 전용 상설 아나바다 시장 개설 운영

- 일본 연수를 통해 일본이 우리보다 국민소득도 높고 물자도 풍부 한데 우리는 버리는 물건을 일본인들은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바꿔서 쓰거나 재활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 재활용품을 분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고 바꿔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누구나 찾아와서 필요한 것을 바꿔가고 연구도 할 수 있는 리사이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 우리 거창에도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재활용품센터를 설치하여 활용 가능한 물건은 버리지 말고 재분류하고 관리하는 리사이클센터를 설치하여 노인회에서 운영한다면 소일감이 없는 노인들이 옷이나 가구, 기타 가정에서 쉽게 수리할 수 없는 가정용품을 수리하는 장소로 활용한다면 농업인이나 서민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2. 귀무덤 거창 안치

- 우리 선조들이 왜병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되고 코가 잘리어 이역만리 일본땅에 묻혀 있는데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91세의 일본 사람 (미미르까)으로, 그 사람의 건강도 양호하지 못해 관리에 대한 문제 등으로 귀무덤을 우리나라로 모셔오는 것을 연구 검토 중이라 한다.
- 이런 기회에 방법이 있다면 귀무덤을 우리 거창으로 모셔와 3·1 문화제 등과 같이 매년 성대하게 제향행사를 거행함으로써 거창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3. 행정 조직은 지역특성에 맞게

- 일본 야마나시현의 과수 시험장은 지역 조건이 좋지 않은 산 중턱에 과수시험장을 설치 운영하고 공무원이 평생을 한자리에서 묘목의 생산과 병충해 방제, 새로운 품종의 개발에 전념하고 있었다.
- 우리 거창은 농업기술센터가 거창지역에서 가장 수리시설과 기후 조건이 좋은 곳에 위치하여 한해에 따른 병충해나 고온 다습 등 기후에 따른 병충해 등이 일반 농업인들과 여건이 달라 농업인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한다면 업무의 성격과 지역여건, 규모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중앙기관의 획일적인 조직보다는 우리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쌀 소비 촉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일본에서는 식생활 습관의 서구화로 서구화된 질병이 발생되고 쌀 소비가 급속하게 줄어들어 따라 동경시내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요지에 쌀 갤러리를 설치하여 20~30대 젊은층의 지속적인 쌀 소비와 관련된 요리방법 100여 가지를 팸플릿에 담아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 20~30대층을 겨냥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판하여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었다.
- 우리 군에도 쌀 소비 촉진과 농업군으로서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쌀 소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IV. 맺음말

1. 선진국 국민의 정서와 자질 소유

-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인들의 생활 습관과 일본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일본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영토와 인구 면에서 3배 이상이고 국민소득도 2배 이상의 그야말로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인 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고 선진국 국민의 정서와 자질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
- 거리는 질서 있고 깨끗하게 정리 정돈되어 있었고 도심지의 하천에는 월척인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치고, 뛰는 사람이나 추월하는 자동차와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를 볼 수 없었으며 고도화 된 친절(눈높이 친절)이 습성화 되어 있었다.
- 개인 사생활면에서는 검소하고 양보심이 많고 작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국민성으로 크고, 화려하고,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2. 지진의 불안과 물가고의 고통

- 그러나, 지진과 화산의 위협 속에 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고뇌와 아파트에서 자전거 주차료를 3,000~4,000엔을 부담해야 한다는 높은 물가를 볼 때, 내심 국민들의 생활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3. 좋은 점은 우리 생활에 접목

- 요즘 독도 문제와 역사 교과서 왜곡으로 반일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우리가 약하고 못한 탓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남의 땅을 갈취하려 하고 침략의 역사를 왜곡하는 제국주의의 근성을 물리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개개인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빨리 빨리” 문화에 젖어 있는데 이에 대한 냉정한 반성과 우리의 지표를 되찾기 위해 그들의 “잘 보전된 환경, 질서 있는 거리, 양보하는 시민정신, 서두르지 않는 국민성”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부국강병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실천하는 슬기로움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